

출처: 오리고기 유통관련 조사 및 해외시장 개척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6

## [오리고기 유통관련 조사 및 해외시장 개척 방안 연구] 오리 사육 농가 경영 실태

### 가. 오리생산의 계열화

#### 1) 계열화 사업의 개념

일반적으로 산업은 각 부문이 개별 경영체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고 독립된 개별 경영체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윤을 극대화 시키려할 것이기 때문에 생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마다 이윤이 부과되면 자연히 최종 소비자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타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므로 생산과 유통 및 판매를 하나의 경영체로 하여금 총괄 관리케 하는 계열화사업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계열화사업 체계는 수평적 계열화사업과 수직

적 계열화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수평적 계열화사업은 같은 종류의 산업이 서로 통합하여 규모의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목적으로 경영을 통합하는 형태(예를 들면 단지화)이고, 수직적 계열화사업은 한 산업 내부의 각 부문이 경영을 통합하여 비용절감은 물론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계열화사업 형태를 말한다.

#### 2) 육용오리 계열화 사업의 필요성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농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농업 분야에 종사할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향상되다 보



니 소위 말하는 3D에 종사하려는 지원자 수는 더욱 줄어들고 비록 소득이 다소 낮더라도 도시에 거주하면서 자녀 교육이나 의료 및 문화 혜택 등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농촌으로부터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노동력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의 변화로 작업환경이 열악한 육용오리 사육 부문에로의 노동력 유입은 점차 막혀 가고 있어서 지금까지 도계장, 부화장, 종오리장 등을 보유하고 대단위 육용오리 사육에 참여하고 있던 기업적 대규모 육용오리 생산 업체는 노동력 조달이 경영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기 투자된 각종 시설이나 기자재를 다른 부문에 활용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며 고용 노동력에 의한 육용오리 생산 관리는 그 생산성 향상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환경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육용오리 사육 농장도 공해 유발원으로 서서히 성토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어서 결국 기업적 대규모 육용오리 사육은 갈수록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

한편, 중소 규모의 육용오리 사육 농가는 가격 변동의 원인 등으로 경쟁에서 점차 도태되어 대책 없이 생업의 발판을 잃기 쉽다. 여기에서도 농촌 노동력 부족 현상은 여전하여 경영주가 직접 생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시장 정보에 어두워 생산 자재의 구입이나 생산물의 판매 면에서 더욱 불리해지므로 더욱 많은 중소 규모 사육 농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농가는 육용오리 사육 시설과 기술 축적은 어느 정도 되어 있어도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낼 능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장기 불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자본 조달 능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여기에서 자본 조달 능력과 경영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오리 사육을 담당할 노동력 조달이 어려운 기업과, 사육 시설과 기술 및 노동력은 보유하고 있으면서 자본 조달과 경영 능력이

부족한 사육 농가를 접목시키는 일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로 오리 산업의 계열화 체계의 기본 골격이다. 따라서 육용오리의 계열화 사업은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여 생존하려는 공생 공존의 필사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함이 정당할 것이다. 물론 경영 능력이 뛰어나고 자금 동원 능력이 어느 정도 구비된 중규모 이상의 육용오리 사육 농가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므로 별 문제되지 않을지 모르나, 그렇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이들로 하여금 계열화 사업에 참여케 함으로써 본래 그들의 영역인 육용오리 사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에서 계열화 사업의 추진 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 3) 육용오리 계열화사업 체계의 효과

계열화사업 체계에서는 경영 전체를 하나의 경영주체가 종합적으로 주관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①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중간재에 대해서는 과세부과를 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렇게 되면 경영체의 입장에서는 절세(節稅)가 가능하며 최종산물 판매단계에서만 이윤을 부과함으로써 이윤의 중심점을 단일화 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단독 경영 체계에 비하여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 ② 자재의 조달, 사육관리, 가공처리 등의 상품화 과정이 하나의 경영체에 의하여 주도됨으로서 제품의 규격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으며 질병관리 면에 있어서도 효율적일 수 있고 제품의 위생적 처리수준을 제고할 수 있다.
- ③ 경영주체는 자기 상표에 대한 광고, 선전을 할 뿐 아니라 다른 계열업체와 수평적으로 통합할 경우 공동 광고활동이 가능하여 제품의 소비촉

진에 기여할 수 있다.

- ④ 계열화사업 체계에서는 전체의 생산을 소수 경영체가 관찰할 수 있으므로 생산 조절을 위한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어서 수급조절이 용이할 뿐 아니라 제품의 수출입에도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과잉 또는 과소 생산의 진폭을 완화시킬 수 있다.
- ⑤ 자재공급업체와 같은 연관 산업과의 거래 교섭력을 높여 산업간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산업간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 ⑥ 이상의 효과를 바탕으로 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며 종국적으로는 전체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4) 오리 계열화 생산의 계약 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계열화 사업은 도압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영체가 오리 생산에 필요한 축사시설과 사육기술, 노동력제공이 가능한 농가에게 사료, 새끼오리 등의 생산자재를 제공하면서 오리 사육을 위탁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일정 체중에 도달하는 오리를 출하하면 그 댓가로 일정한 사육비를 지급하는 형태이므로 농가와 계열업체 간에는 엄정한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농가에게 위탁한 생산자재는 계열주체의 소유로서 사육농가가 위탁 관리하고 있는 형식이므로 선의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양자 간에는 재산상의 분쟁이 일어날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 오리 사육을 위한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표 1] 육용오리 사육 계약내용사례**

구분	A사	B사
육용오리 출하체중	3.2kg(50일령, 일반용) 2.8kg(44일령 통오리용)	3.2kg(45일령)
적용 초생추가가격	900원	700원
생체중 증감시 가감율	100g 당 100원	100g당 100원
오리수매가격	수당 4,200~4,650원	수당 3,900원
오리새끼,사료등 자재 소유권	계열업체	계열업체
적용사료가격	계열업체가 원하는 사료를 전량 사육농가가 구입	계열업체가 공급
질식, 우모불량오리 페널티	수당 100원	수당 150원
사육비 지급	출하후 15일 이내	출하후 15일 이내
사육비 지급보류 사유	-	50일령이내 2.9kg 미만 관리 부주의로 폐사율 10%이상
계약유효기간	4개월 단위	계약일로부터 1년간

**[표 2] 종오리 사육 계약 세부 내역**

구분	계약내용요약
생산 기간	75주령
병아리 가격	PS : 9,000원, F1 : 3,000원
적용 사료가격	오리 새끼용: kg당 397.6원 육성 오리용: kg당 352.0원 중 오리용: kg당 390.8원
적용 종란가격	(PS 종란) - 산란율 50%이상: 개당 330원(소란, 파란 쌍란 제외) - 5% 오염란 인정, 초과 오염란 개당 50원, 쌍란: 개당 200원 - 산란율 30%이내: 개당 50원 - 수정율 80%이하: 개당 50원 - 부화율 60%이하: 합의하여 도태 결정 (F1 종란) 개당 290원

와 이를 주관하고 있는 계열업체간의 계약내용을 검토한바, 다음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계열업체별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출하체중은 A사의 경우 50일령 3.2kg, 44일령 2.8kg, B사의 경우 45일령 3.2kg 등 다양하다. 오리 새끼, 사료 등 생산자재의 소유권은 계열업체에 있으나 이를 농가가 외상으로 구입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생산자재에 적용할 가격이 필요하므로 새끼오리 가격은 700원~900원, 육용오리 가격은 3,900원~4,650원, 불량오리에 대한 페널티는 수당 100~150원 등으로 다양하다. 그밖에 계약내용으로는 사육비 지급시기는 출하후 15일 이내이며, 사육비 지급보류 사유는 50일령이내 체중이 2.9kg에 미달하거나 관리 부주의로 폐사율이 10%이상일 경우이다. 계약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1년간 등 다양하다.

### 5) 계열업체

현재 오리 생산단계에서 계열화로 생산된 비중이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이를 주도하고 있는 계열업체 중에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종오리, 부화, 사료, 사육, 도축, 가공, 판매, 외식 등 8개 부문에 걸쳐 완전계열화가 이루어진 업체는 아직 없고 종오리, 사료, 부화 등 부문에서는 부분계열화, 나머지는 완전계열화를 이루고 있는 업체가 2개 있었다.

7개의 오리 계열 주체의 경영형태는 영농조합이 3개, 주식회사가 2개, 개인 업체가 2개였고, 계열업체의 전체부지면적은 16,382㎡(4,964.1평), 건물면적은 8,608㎡(2,608.6평)이었다. 계열업체는 평균 27.2호(면이계수 46.0%)의 농가와 계약을 맺고 있었으며, 농가 경영주의 성실성 여부(6개 업체), 사육경험 유무(5개 업체), 사육시설 양부(5개 업체)에 따라 사육 농가를 선발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계열업체는 월간 194천수(면이계수 41.9%)의 오리를 관리하여 연간 71.5억원(면이계수 109.9%)의 매출을

【표 3】 오리 계열업체의 계열화 정도

계열업체	종오리	부화	사료	사육	도압(도축)	가공	판매	외식
A	○	△	△	○	○	○	○	○
B	×	×	×	△	△	△	△	×
C	×	×	×	△	△	△	△	×
D	×	×	×	△	×	△	△	△
E	△	△	×	△	×	△	△	×
F	○	○	○	△	△	△	△	△
G	△	△	○	○	○	○	○	○

주) ○완전계열화 △부분계열화 ×미계열화

【표 4】 오리계열업체의 품질향상을 위한 조치

구분	A	B	C	D	E	F	G
상표등록	○	○	○	○	×	○	○
식품배상책임보험 가입	○	○	○	×	×	○	○
브랜드 의장등록	○	×	×	×	×	○	○
검역시행장 지정(도축, 가공)	○	×	×	×	×	○	○
위해요소중점관리시스템 적용사업장(HACCP)	○	○	○	○	○	○	○
품질관리시스템(SO9001)	×	×	×	×	×	×	×

주) ○획득 ×미획득

올리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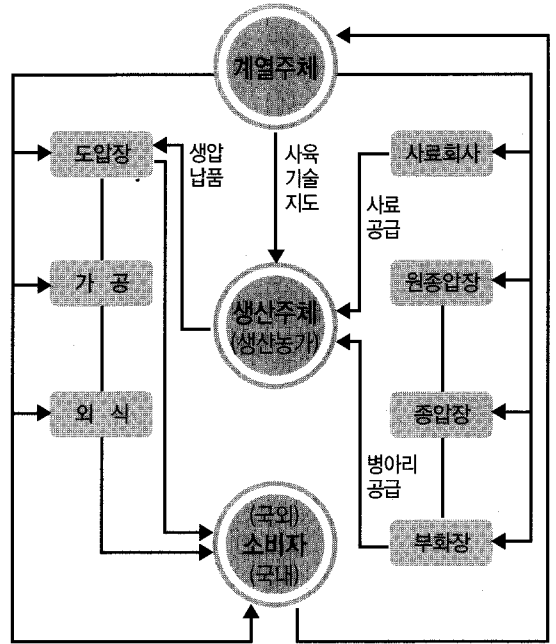
계열업체는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상표 등록(6개 업체), 식품배상 책임보험가입(5개 업체), 브랜드 의장등록(3개 업체), 검역 시행장 지정(3개 업체), 위해요소 중점관리시스템(HACCP) 적용(7개 업체)등을 시행하고 있었고 품질관리시스템(ISO9001)을 획득한 업체는 없었다.

모든 계열업체는 애로사항으로 자금부족, 원료육 조달의 어려움, 설비의 노후화, 금융비용 상승, 가축질병의 창궐 등을 지적하였고 대부분의 계열 업체가 앞으로 오리 산업이 신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6) 육용오리의 계열경영**

**가) 육용오리 계열화 체계**

전술한 바와 같이 계열업체가 생산자재(사료, 새끼오리 등) 일체를 위탁하고 사육기술지도 및 유통판매까지 담당하며, 사육농가는 계열업체 사육지침에 의해 사육 후 계열업체에 납품하고 일정액의 사육비를 지급받는 형식으로 사육비는 기본사육비에 사료 요구율을 가감하여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형태는 사육농가의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지지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능률급 제도를 도입, 사료 요구율을 성적에 따라 보너스를 제공하여 사육농가로 하여금 철저한 사육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에 힘쓰도록 함으로서 경영능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경영방식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림 1】 오리계열화 사업체계도

**나) 계열참여농가의 경영지표**

실제로 한 육용오리 계열업체의 70농가 1,464건의 경영실적을 분석한 지표는 다음과 같다.

**(1) 사육규모 및 육성율**

사육농가의 사육규모는 대략 1회차 평균 입식수수는 5,565수(변이계수 40.36%)이었으며, 5,000수미만 사육규모의 경우는 3,809.6수(변이계수 31.49%), 5,000수 이상 사육규모의 경우는 7,334.9수(변이계수 21.29%)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끼오리 입식은 사육농가의 축사 사정에 따라 다르

【표 5】 사육규모 및 육성율

구분	입추수 (수)			출하수 (수)			육성율 (%)		
	5천수 미만	5천수 이상	전체	5천수 미만	5천수 이상	전체	5천 미만	5천 이상	전체
평균	3809.58	7334.88	5,565.01	3539.46	6983.91	5,254.63	0.94	0.95	0.94
표준편차	1199.71	1561.56	2,246.00	1081.94	1521.37	2,169.58	0.08	0.04	0.07
변이계수	31.49	21.29	40.36	30.57	21.78	41.29	8.87	4.48	7.05
최소값	1150.00	5150.0	1,150	1007.00	5000.0	1,007	0.21	0.7	0.21
최대값	8500.00	12800.0	12,800	4996.00	12232.0	12,232	1.00	1.0	1.00
관측수	735	729	1,464	735	729	1,464	735	729	1,464

다. 한 가지 방법은 평균 7-10일 간격으로 연간 30회 전 입식하는 방식과 40-45일 간격으로 연간 8-9회 전 전량 입추, 전량 출하(All-in, all-out)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오리고기 수요가 위축된 경우 통상 4회, 수요가 확대되는 경우 7회전까지도 입식한다. 참고로 육계의 경우는 전체가 전량 입추, 전량 출하(All-in, all-out)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새끼오리의 육성율은 평균 0.94%(변이계수 0.07%)이었으며, 5,000수미만 사육규모의 경우는 평균 0.95%(변이계수 0.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육계의 경우 출하시 생체중 1.5kg, 육성율 0.95%와 대조를 이룬다. 또한, 사육규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2) 출하시 생체중, 출하일령 및 사료 요구율

생체중은 평균 3.10kg(변이계수 0.16%)이었으며, 5,000수미만 사육규모의 경우는 3.09kg(변이계수 0.17%), 5,000수 이상 사육규모의 경우도 3.10kg(변이계수 0.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하일령은 평균 43.2일(변이계수 2.35%)이었고 5,000수미만 사육규모의 경우는 평균 42.9일(변이계수 2.11%), 5,000수 이상 사육규모의 경우는 평균 43.5일(변이계수 2.5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육계의 35일 보다 길다.

사료 요구율은 육용오리 생체중 1kg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사료의 량으로 나타나는데, 평균 2.2kg(변이계수 0.17%)이었고 5,000수미만 사육구



모의 경우도 평균 2.2kg(변이계수 0.20%), 5,000수 이상 사육규모의 경우도 평균 2.2kg(변이계수 0.1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육계 생체중 1.5kg 기준 사료 요구율 1.70kg 보다 높았으나 육계의 경우 생체중이 증가 할수록 사료 요구율은 높아진 경향이 있으므로 육용 오리의 생산성은 육계의 경우와 대동소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사육비 및 생산지수

사육비는 사육농가의 입장에서는 소득의 원천, 계열업체의 입장에서는 비용의 원천이 된다.

계열업체는 사육농가가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생산실적이 극히 우수하다고 인정될 때 응분의 성과급(보너스)을 지급하고 반대일 경우, 벌과금(페널티)을 물린다.

[표 6] 출하 시 생체중, 출하일령 및 사료 요구율

구 분	생 체 중 (kg)			출 하 일 령 ( 일 )			사 료 요 구 율 ( kg )		
	5천수 미만	5천수 이상	전 체	5천수 미만	5천수 이상	전 체	5천수 미만	5천수 이상	전 체
평 균	3.09	3.10	3.10	42.87	43.47	43.17	2.22	2.22	2.22
표준편차	0.17	0.16	0.16	2.11	2.55	2.35	0.20	0.13	0.17
변이계수	5.37	5.21	5.29	4.91	5.86	5.45	8.86	6.04	7.59
최소값	2.55	2.6	2.55	37.00	15.0	15	1.76	1.8	1.76
최대값	3.63	3.6	3.64	56.00	53.0	56	4.35	3.2	4.35
관측수	735	729	1,464	735	729	1,464			

계약에 따라 농가는 지급되는 새끼오리와 사료 등 생산자재를 이용, 자신의 사육시설에서 일정체중에 도달할 때까지 사육하여 계열업체의 지시에 따라 출하하면 사육성적에 따라 사육비를 받는다. 이때 사육비를 결정하는 각종성적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두 가지가 있다.

절대평가 방식은 계약단계에서 정한 각종 지표의 달성 여부에 따라 기본급에 장려금을 더하거나, 벌과금을 차감하여 사육비가 지급된다. 예컨대 45일 기준 출하오리의 생체중이 3.2kg이면 수당 800원의 사육비를 지급하기로 계약되었으나 실제로는 3.3kg을 달성할 경우 100g 당 100원을 보너스를 받아 수당 900원을 지급 받고, 만일 기준보다 낮은 3.1kg을 달성할 경우 100g 당 100원을 페널티를 물려 수당 700원이 적용 계산된다.

상대 평가의 경우는 계열 업체별 참여 농가 중 상위 10%, 하위 10% 해당 농가를 제외하고 80% 해당 농가의 평균과 농가별 실제 달성 성적이 정(+)이면 보너스를, 부(-)이면 페널티를 물려 사육비를 지급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장단점이 있으나 절대 평가는 계산이 간편하다는 장점과 함께 지표가 경직되어 시장 상황에 연동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고, 상대평가는 80%참여농가 달성기준에 미달한 농가로부터 받은 페널티로 평균을 상회하는 농가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계열업체에서는 별도의 부담 없이 농가

간 치열한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서 계열화 속성상 관리가 느슨할 수 있는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 계열업체에 유리할 수 있다.

수당 사육비는 평균 946.5원(변이계수 26.80%)이었고 5,000수미만 사육규모의 경우는 평균 958.9원(변이계수 33.45%), 5,000수 이상 사육규모의 경우는 평균 934.0원(변이계수 17.02%)으로 사육규모가 클수록 농가가 수령하는 수당사육비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열업체입장에서 보면 참여농가의 사육규모가 클수록 유리함을 간접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육용오리의 수당 사육비는 육계의 200원 수준에 비하여 대략 5배정도 높았다. 이는 육용오리와 육계를 비교할 수 있는 지표로도 쓰이는 바, 육용오리 성적을 평가함에 있어 육계의 5배정도로 파악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 할 것이다.

생산지수는 흔히 말하는 생산지수(기준년도 생산량을 100으로 보는 당해 년도의 생산량)과는 전혀 관련 없이 육계계열화 사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오리 사육농가의 성적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육용오리 계열화 사업에서도 이 생산지수를 활용하고 있는 바, 생산지수는 사육농가의 경영성적을 나타내는 요소 중 육성율과 평균체중처럼 클수록 좋은 요소와 사료 요구율, 사육 일수와 같이 적을수록 좋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여 생산지수<sup>1)</sup>를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다.

표본 사육농가의 생산지수는 평균 308.3(변이계수

**【표 7】 수당사육비 및 생산지수**

구분	수당사육비 (원)			생산지수		
	5천수 미만	5천수 이상	전체	5천수 미만	5천수 이상	전체
평균	958.91	933.97	946.49	307.29	309.37	308.33
표준 편차	320.77	158.94	253.67	45.25	40.30	42.85
변이 계수	33.45	17.02	26.80	14.72	13.03	13.90
최소값	-3427.62	126.1	-3,427.62	33.84	168.4	33.84
최대값	2,909.20	1366.5	2,909.20	424.44	882.3	882.27
관측수	735	729	1,464	735	729	1,464

1) [(육성율×평균체중)÷(사료요구율×사육일수)]×100



13.90%)이었고 5,000수미만 사육규모의 경우는 평균 307.3(변이계수 14.72%), 5,000수 이상 사육규모의 경우는 평균 309.4(변이계수 13.03%)로써 사육규모가 클수록 생산지수는 약간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로 보기는 어려웠다. 이로서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해지는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웠다.

참고로 육계의 경우 이 생산지수를 사육농가의 경영 성적지표 많이 쓰이고 있는바, 실제로 이 지수가 190 이상부터 성과급이 지급되는데 190~199인 경우 kg 당 3원, 200~209인 경우 5원, 210~219인 경우 7원, 250이상인 경우 15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 7) 오리 사육 계열화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오리 계열화 사업은 2003년 10월 대상축종에 포함되어 2004년부터 정책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원 대상은 계열화사업자 종축장 및 사육시설과 같은 기반시설과 육가공장, 유통, 판매시설, 냉동, 냉장시설 등 가공판매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 졌다. 계열화 사업이 정착된 양계의 경우 시설 개·보수위주 지원에 반해 오리는 신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다.

계열화업체에 소속된 농가는 위탁사육 형태로 운영되

어 오리 계열화사업은 수직계열화 형태가 대부분이고 유사 형태의 계열화 사업도 상당수에 달한다.

현재 계열화 사업에 대한 농가의 인식이 부족하고 업계도 계열화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가 낮아 2003년부터 계열화 사업 지원이 시행되고 있다.

계열업체와 사육농가 간 연대의식도 부족하여 분쟁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고 사육농가가 계열업체에 종속되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 계열업체의 입장에서는 농가 간 결속으로 집단행동을 염려하는 나머지 계열업체와 사육농가와의 간담회 등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다.

사육농가의 오리 사육시설이 낙후되어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바, 제대로 된 오리 사육 축사를 이용한 농가 수는 적고 시설 채소(오이) 용 비닐하우스나 파이 프하우스 형 축사를 이용하는 오리 사육농가가 많다.

또한 사육 농가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따라서 열악한 축사 및 시설 개선을 위하여 계열업체를 통하여 소속된 농가에 대한 시설개선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고 필요가 있다.<sup>2)</sup> 또한 오리 사육에 맞는 사육시설 표준 설계도 제작하여 지원하고 계열업체와 농가가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표준계약을 만들어 상호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모 업체는 계열농가의 시설개선을 위하여 100여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제공하고 있음. 이는 사육 기반의 저변확대를 위한 경영전략으로 보임.